

### 영양 긍정농협 12일 '대봉감 축제'

영양군 긍정농협(조합장 박찬원)은 오는 12일 '제6회 대봉 감 축제'를 금정초·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금정면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긍정농협은 대봉 감 홍보전시관을 운영, 무료 시식회와 품종별 감 전시, 가공 식품 품평회를 갖는다. 또한 민민 한마당잔치에서는 감각기 행사를 비롯 출향인과 만남의 장, 마을 대화 노래자랑도 열린다. 한편, 영양 금정면은 600여 농가가 350ha에서 연간 1천800여톤의 대봉 감을 생산, 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영양=김한남기자 hnkim@

### 광주지검 '자매결연' 함평월야서 축사소독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명동성)은 최근 자매결연마을인 함평군 월야면 예동마을(이장 안윤수)을 찾아 축사소독 등 교류활동을 벌였다. <사진> 광주지검과 예동마을은 지난해 10월 광주축협 안명수 조합장 주선으로 1사1촌 자매결연을 했다. 광주지검은 지금까지 8회에 걸쳐 20kg들이 쌀 2322포대를 비롯해 잡곡류·복분자 등을 구입했고 마을주민 전원을 광주지검으로 초청, 위안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전남 89곳 방범용 CCTV 설치

#### 경찰청, 범죄발생·농산물 도난 예방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방범용 CCTV가 전남지역으로 확대·설치된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예방을 위해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신 첨단기능을 갖춘 방범용 CCTV를 관내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는 목포와 장흥, 광양 등 CCTV가 설치된 9곳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읍해 범죄발생건수가 51건으로 작년보다 16%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남지역 73곳에 145대 등 모두 89곳에 177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농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농·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주요 위치에 설치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 강화된다

### 영리단체·일회성 행사 대상서 제외 결제전용카드제 도입 사후 심사 엄격해져

내년부터 전남 도내 지자체들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과 절차가 강화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보조금 신청 기준을 마련,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별하고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 사후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표시는 내년부터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설립목적과 상이한 사업, 일회성 행사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서남권하나파기 운동과 명품도시 목표 만들기 시민의식 혁신운동 등 목표

시 중점 추진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내년부터 세무서에 등록된 사회단체에 한해서 엄격한 신청과정과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식비나 기념품 경비)로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 사용자 심사에 강화할 방침이다. 무안군도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한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500만원 이하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결제전용카드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추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안군은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결제전용카드제 도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함평군은 이미 지난 7월부터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법인이나 군에서 인정하는 단체로 지급 대상을 제한기로 했다.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기 식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급기준과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여타 행정업무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종합

## 여수에 생선회 공장 문연다

(주)한국선생, 화양면에 30억 투입 하루 1~5t 가공 처리

다음달 중순 여수시 화양면에 선 어회 가공공장이 문을 연다. (주)한국선생이 총 30여억원을 투입한 선어회 가공공장은 연면적 2천240㎡에 하루 1~5t까지 각종 생선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장내부에는 해저 800m에서 끌어올린 해수를 연중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면서 1주일 정도의 물량 저장 가능한 활어 계류장을 비롯해 진공포장실, 자외선 살균기, 냉장실에다 중금속을 걸러내는 중금속 탐지기까지 갖췄다.

공장으로 반입된 생선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일정한 규격으로 잘린 뒤 포장돼 나간다. 한국선생은 우선 전복, 광어, 우럭, 각종 도미류를 가공·생산한 뒤 복어와 납치, 병어, 장어 등 모든 생선류를 가공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산이 섞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협을 통해 필요한 생선을 전량 납품 받을 계획이다. 또 항생제 잔류검사를 실시한 뒤 인증 표시를 포장지에 부착,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걷기대회' 답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건강걷기대회'가 8일 주민들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걷기 대회는 추성경거장을 출발, 관방제림을 지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6km 구간의 숲길에서 진행됐다. /위진량기자 jrwi@kwangju.co.kr

## 장성 평림댐 '물 담기' 시작

내년 상반기부터 장성과 함평·영광·담양 등 전남 서부권 4개 군에 하루 3만톤의 용수를 공급할 장성 '평림댐'이 본격적인 물 담기를 시작한다. <조감도> 한국 수자원공사(사장 곽철호)는 오는 14일 장성군 삼계면 평림댐 건설 현장에서 지자체 대표들과 주민대표 및 공사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담수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평림댐은 높이 37m, 길이 390m, 총 저수용량 약 850만 규모로, 지난 2001년 11월 30일 착공해 최근 댐 축조를 마무리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평림댐 완공으



로 2007년 상반기부터 전남 서부권 주민들에게 하루 3만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돼 현재 31.7%에 불과한 급수율을 76.9%까지 끌어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민기자 jgko@

## 보성읍 상설시장 62억 들여 현대화

시설이 낡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보성읍 상설시장이 현대화된다. 시설현대화에는 오는 2008년까지 총 사업비 62억여원이 투입되며 장육 1동과 주차장, 비가림시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보성역과 보성읍사무소 중간에 위치해 있는 보성읍 상설시장은 지역 상권의 중심지이나 1960년에 건축돼 우천 시 누수가 심하고 전기시설이 낡아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보성군은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실시계획을 마치고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재래시장 기능 활성화로 지역 농수산물 판매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보성읍의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정중해 보성군수는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방문, 내년 사업비로 국비 21억원을 확보했으며 타 지역 시장에 대한 벤치마킹 등 전국 최고의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별도 5일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9억원도 확보, 금명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 농촌 모습 그대로 담은 '다섯 마을 이야기' 나주시 '생활의 기록전' 열린다

농촌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온 나주시 다섯 마을 이야기를 담은 '생활의 기록전'이 열린다. (사)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경주)와 (사)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회장 박철우)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2006 신나는 예술여행 나주 다섯 마을 이야기 생활의 기록전'을 10일부터 14일까지 나주시 남평읍 남서리 중남마을을 시작으로 다섯 마을에서 12월 말까지 갖는다"고 밝혔다. '생활의 기록전'에 등장할 마을은

광주·전남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 나주배의 원산지인 금천면 동야리와 월산리를 비롯해 다도면 풍산리, 봉황면 철천리, 수성 최씨의 집성촌인 남평읍 남서리(족돌) 중남마을 등으로 농촌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온 마을들이다. 광주민예총 등은 이들 농촌마을의 모습과 주민들의 삶을 담은 사진 30점, 조각과 그림 각 10점 등을 전시하고 주민들의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한 영상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 심장질환!!

북한의 조선중앙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환 김필환 박사의 기저질환 예방이 필요한 이유를 혈액정화기를 과학적으로 소개했다.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 등 혈관 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햇빛을 쬐어주면 혈액 속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이 장치, 빛깔은 시원하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김영남박사가 발명한 혈액정화기! 태양빛을 받는 순간 피가 맑아지고 힘이 생기는 이 기술을 북한에서는 '햇살' 즉 '빛의 산삼'이라고 부른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혈전, 당뇨병 등 노년층의 주요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이 기술을 60년대 개발하여서 수많은 환자를 낫게 한 신기술에 비견할 만한 세계적 발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지환 김필환 박사는 '혈액정화기'는 북한에서 1970년대부터 개발하여서 2005년 11월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100여개국이 수출되고 있다.

이 책을 보는 순간 슬픔에서 행복으로